

제목	당신의 이름은 나의 시간		
소속 대학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광고홍보학과
학 번	2021****	이 름	윤**
이메일		연락처	

영원한 짝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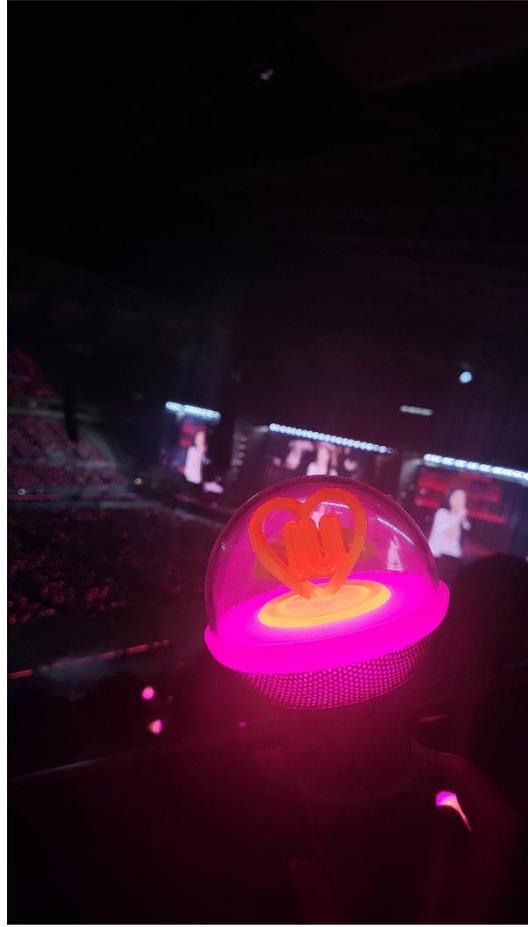
나는 15년 동안 한 여자를 짝사랑해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무대 위에서는 아이유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유독 아이유의 콘서트에서는 2010년대 초반의 노래들이 많이 울려 퍼진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의 음악적 뿌리이자, 변치 않는 코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시절의 노래를 들을 때면 늘 내 심장은 뛰고, 열두 살의 나로 돌아간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 누군가의 음악이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아이유를 통해 알게 됐다. 내 나이 스물 넷, 삶의 절반 이상이 아이유로 가득 차있다. 윤**로 살아온 기간보다 ‘유애나’ 윤**로 살아온 기간이 더 길다. 아이유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건, 어린 내 눈에 그녀가 들어왔고,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가수 사이에서 아이유를 먼저 찾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쩌면 이 지독하고도 운명적인 짝사랑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린 나의 가수, 더 어렸던 나 <너랑 나>

“눈 깜박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

아이유의 <너랑 나>는 내 봄 같은 시절과 정확히 포개진다. TV 속 ‘영웅호걸’을 보며 그녀를 따라 웃던 나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다. 20~22년도의 코로나 시기에 성인인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아이유의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중고 등학생 시절엔 시간도, 돈도 없어서 그녀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는 일이 있다. 중학교 3학년, 유애나 1기 팬클럽이 처음으로 모집되었지만, 나는 가입할 돈이 없었다. 대신 나는 유튜브와 멜론에서 그녀의 신곡을 찾아 듣고, 노래방에서 그녀의 노래를 부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너랑 나>의 대표 응원법인 “손 틈새로 비치는 아이유 참 좋다”를 언젠가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외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아이유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내 유년기와 청춘의 풍경 그 자체였다. 그리고 현재의 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다 참석하여 “아이유 참 좋다”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



작년 9월, 상암 경기장에서 열렸던 THE WINNING 콘서트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성장과 열정의 충돌 <스물셋>

아이유의 음악 인생에서 ‘성장’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특히 <스물셋>은 아이유가 세상의 편견과 시선에 정면으로 대답한 곡이었다. 당시 대중은 그저 ‘악플에 맞서는 센

이미지'로 소비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이 곡은 스물셋이라는 혼란스러운 나이의 감정을 깊이 있게 그려낸 성장 서사가 아닐 수 없다. 그 나이의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휴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람들을 만났지만, 누군가의 웃음이 호의인지 적대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혼란스러웠다. 그런 내 마음을 꼭 잡아주는 가사 “인사하는 저 여자, 모퉁이를 돌고도 아직 웃고 있을까 늘 불안해요” - 는 마치 나의 속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했다. 아이유는 나보다 조금 앞서 나이 들어갔고, 나는 그녀의 노래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가수를 이해했다. 아, 스물셋은 혼란스러운 나이구나. 내 가수도 그랬을 뿐이구나. 나는 음악을 통해 그녀가 걸었던 발자국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

불면의 밤, 성찰 <무릎>

그녀의 음악은 언제나 진심을 품고 있다. <무릎>은 그중에서도 가장 조용하면서도 깊은 위로를 주는 곡이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아이유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던 유년의 기억을 떠올린다. 어릴 적 나도 그랬다. 텔레비전 소리와 선풍기 바람이 어지럽게 얽혀 있던 여름날, 나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곤 했다. 그때의 감촉은 아주 오래된 포근함으로, 지금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다.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아이유의 이 노래를 들으면, 복잡한 생각에 잠 못 들던 나의 새벽이 겹친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새벽 4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던 나는 늘 지쳐 있었다. 그런 밤이면 <무릎>이 나의 자장가가 되었다. 따뜻한 위로도, 직접적인 격려도 없는 노래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새벽까지 공부하던 학생인 나에게 ‘잠’이 우습게도 위로가 되었다.

어쩌면 아이유는 말 없는 방식으로 곁에 있어 주는 법을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단순한 가창자가 아니다. 음악이라는 언어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조용히 품고 다

독이는 이야기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계절씩 조용히 자라났다.

상실과 끝 <에잇>, <겨울잠>

죽음을 가까이서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이상하게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유난히 많이 운다. 아이유의 <에잇>과 <겨울잠>은 그런 나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6년 지기 친구와 멀어진 지난해, 나는 처음으로 아픈 이별을 경험했다. 그건 절대 아름답지 않았다. 차라리 영영 끝났다면 덜 아팠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이별이란 단어가 가진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고, 아이유의 노래는 그 감정을 곱씹게 해주었다. 나는 아직 이별이 두렵다. 내게 이별은 아직 아름답지 않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나도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별은 정말 아름다울 수 있을까? 사람은 살기 위해 아픔에 덤덤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아픔에도 덤덤해진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에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세상에 정나미를 붙이며 살아가고 싶었던 아이유의 말처럼, 나도 그렇게 정을 붙이며 살아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 아픈 이별에 대한 답은 미래의 내가 알 것이다. 난 좋아하는 이에게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면,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랑하고, 후회 없는 이별을 맞이할지도 모른단 생각이 든다.

노래가 전하는 위로와 사랑 <아이와 나의 바다>, <Love wins all>

<아이와 나의 바다>는 아이유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 담긴 곡이다. “아이는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라는 가사는 그동안 그녀가 감당해 온 고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노래를 들으며 나는 다른 사람의 치열한 삶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나도 그렇게 진심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은 아이유의 음악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Love wins all>은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세상에 대한 포용을 담은 노래다. 혐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아이유는 조용한 선행과 음악을 통해 연대와 사랑을 실천했다.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나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당신의 이름은 나의 시간 <마음>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다. 그 안에서 생기는 소속감은 특별하고 강렬하다. 아이유를 사랑하면서, 나는 '나 아닌 누군가'를 꾸준히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의 기부와 선행을 보며, 나도 작게나마 닮고 싶다고 생각했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 피해 지역에 내 이름으로 10만 원을 기부했다. 내 인생 첫 기부였다. 뿌듯했고, 그건 분명 아이유 덕분이었다. “그래봤자 그 가수는 네 존재도 몰라.” 많은 이들이 팬에게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팬은 아티스트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 그가 사랑받을 때, 그 감정 속에 내가 조용히 섞여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같은 시간 속에 있다. 그녀가 성장할 때 나도 성장했고, 그녀가 아팠을 때 나도 울었다. 나는 그녀를 짝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넘어 인생의 이정표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는 아이유의 <마음>을 떠올린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아이유의 노래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 특유의 감성을 담은 음악은 내 마음을 울렸고, 아이유에 대한 사랑이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 둘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음악으로 함께 걸을 미래가 기대된다. 그러니 나의 짝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